

전남 공직자들 속속 지방선거 앞으로

사퇴 시한 아직 많이 남았지만
유권자 접촉 폭 넓히는데 주력
윤병태·김병주·전동호 등 퇴직
최용선·박노원 행정관도 靑 떠나

내년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에 연고를 둔 고위 공직자들이 속속 입고 있던 ‘공직의 옷’을 벗어 던지고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다. 공직사퇴 시한(선거일 90일 전)은 내년 3월 1일 까지로 여유가 있어보이지만, 코로나 19 상황에서 현직 단체장 등 기성 정치인의 견고한 벽을 뛰어넘기 위해 조기 사퇴 후 유권자 속으로 가거나 대선캠프에 몸 담는 등 저마다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윤병태(61)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퇴임식을 열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1993년 공직에 들어선 윤 부지사는 20년 이상을 기획재정부 등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아오다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 취임 후 첫 정무부지사에 발탁됐다. 예산 확보 등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8월 재임유했으나 나누시

장직 도전을 위해 옷을 벗었다. 이에 앞서 전남도에서는 김병주 문화관광국장, 전동호 건설교통국장, 지영배 한전공대 설립지원단장, 한동희 전남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각각 나누시장, 영암군수, 완도군수, 영광군수 선거 도전을 위해 명예퇴직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최용선 선임행정관, 박노원 행정관(행안부 파견)도 최근 직에서 물러난 뒤 차기 지방선거에서 각각 나누시장, 장성군수선거에 도전할 것을 알렸다. 코로나 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탓에 정치 신인들은 현직 기초단체장, 도의원 등 기성정치인보다 불리한 상태에서 출마선에 서게 됐다. 현직을 포함한 기성정치인들이 조직과 인지도에서 우위를 점한 상태인데다, 코로나 19 방역 제한 때문에 유권자 접촉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어서다. 여기에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 일정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지방선거에 나선 정치 신인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정치 신인들이 지방선거에 임하는 방식은 사뭇 달라보인다. 우선 윤병태·김병주·전동호·지영배·한동희 등 직업공무원 출신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에 터잡고

유권자 접촉면을 늘려가며 민주당 경선을 뚫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살피고 공약도 마련하는 모습이다. 반면 최용선·박노원 등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대선캠프와 민주당에 몸담으며 일단은 정권 재창출에 힘을 쏟는 것으로 비쳐진다. 지역 정치권 인사 일부는 이들에 대해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심사 과정에서 나머지 후보 모두 배제)을 내리기 위해 확실한 ‘큰’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정당과 중앙부처, 국회에서의 공직 경험을 통해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으며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유권자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차기 지방선거는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대통령 선거 불과 석달 뒤 치러지는 초유의 선거이다.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보면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너무나 적은 것”이라며 “약조권 속에서 운명을 건 도전에 나선 정치신인들의 행보를 지켜보며 유권자들에게 어떤 선택을 받게 되는 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진욱 공수처장(왼쪽)과 여론국 공수처 차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수사, 유념해 검토” 대장동 의혹 특검 필요성엔 “의견 표명 적절치 않아”

김진욱 공수처장 국감 답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유념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변호사비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은 대법관 출신 등 초호화로 30명에 달해 수입료가 최소 수억원에 이를 텐데 이 지사의 재산변동은 거의 없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

부장 등 제3자가 대납한 것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처장이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하자 권 의원은 “이거(수사) 안 하면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응수했고, 김 처장은 “법 개정을 통해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과거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사건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했던 적은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법률가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지자체 통합 예약시스템 구축률 33% 불과

이병훈 국회의원

지난 2019년 권익위 권고에도 전체 지자체 통합예약시스템 구축률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울) 국회의원이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2만5000여 공공 체육시설이 예약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 중이고 안전 점검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0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의 공공 체육시설이 특정 단체, 동호인들이 장기간, 독점해서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시설관리도 소홀해지고 있다면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권고했었다. 이에 이병훈 의원실에서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이행 여부 점검 차원에서 핵심인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광역 17곳 중에 7개 지자체만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세종시가 별도의 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 중이고, 인천시와 대전시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시스템을 운영 중이었다. 기초자치단체도 권익위 권고대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곳은 33%에 불과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 중인 곳은 35곳,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는 곳은 38곳이었고, 별도 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 중인 곳은 12곳에 불과했다.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곳은 143곳에 달했다.

열차내 마스크 미착용 적발 1만6000건 달해

김회재 국회의원

코로나19 방역수칙 시행 이후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 적발 건수가 1만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울)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수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내 방역수칙 위반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마스크 미착용 적발 건수는 1만5596건이었다. 이 중 마스크 미착용자를 강제하차시켜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한 건수는 49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건수의 0.3%에 불과한 수치이다. 반면 마스크 미착용 적발 건수는 2020년 5078건에서 2021년 1만5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마스크 미착용 고객을 발견하더라도 한국철도공사가 강제할 권한이 없어 방역수칙 위반이 잦다는 지



적이 나온다. 마스크 미착용을 포함해 방역수칙 미이행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된 건수는 총 138건이다. 이 중 철도중사자를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경우는 40건, 업무방해는 4건으로 나타났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강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KTX 이용 가능 승객수는 최소 959명 이상인데 반해, 승무원 수는 3명(팀장 1명, 객실승무원 2명)뿐이다. 사실상 소수 인원이 수백명의 승객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방역수칙 위반자의 지시불응 등 승무원에 대한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국철도공사의 강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용시 결혼 등 질문 범위반 아니다 해석 잘못”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비례) 국회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채용 시 결혼·출산여부 질문만으로는 법 위반 아니라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주)SK piglobal의 경력직 면접자리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았고, 피해 당사자는 문제의식을 느껴 고용노동부로 민원을 신청했다. 피해자는 결혼계획은 있는지,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향후 출산이나 결혼계획은 있는지 등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질문을 받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에 대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또



‘채용관련 서류에 요구금지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없이 구두 질의만 한 경우 해당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했다. 강은미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채용시

상가건물, 다가구, 전원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건물

광주, 북구. 오치4층 대384㎡(116평) 건물 연998㎡(302평) 이파트 집다사거리코너 먹자골목 주도로 단층6개 점포 상권 최상보1억8천만원 월6백4십만원 매입 후 월세 상황 조정가 매16억5천만원

2 다가구 및 주택용지 ※주거2종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광제림, 유림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 포장 배수시설 됨. 소형 승강기 설치 토지 8,098㎡(2,452평) 40여년생 소나무 명목 외 8종 정원수 및 과수 380주 포함 전원주택 단지 선호지 10채 조성 가능 본 기존 건물 후면 산산 묘지 조성가 경관 수려한 숲 속 매 7억

3 전원주택내, 10여채 단지조성용의, 선산묘터 가능

담양읍, 금성, 덕성리, 덕진 산자락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스프라브식 외벽, 적벽돌. 2층연 129㎡(39평) 소형 승강기 설치 토지 8,098㎡(2,452평) 40여년생 소나무 명목 외 8종 정원수 및 과수 380주 포함 전원주택 단지 조성. 물차장, 펜션 다목적 사용자.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매 8억 8천원

4 전원주택용 토지와 식재된 정원수 20년생 8종 2천주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년생 외 7종 2천여주 조성수 포함 전원주택 단지 조성. 물차장, 펜션 다목적 사용자.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매 8억 8천원

5 임야, 휴양림 30년생 편백 1만주 마을 변방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 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3,000평) 구내 웅담생 전원주택지 귀농 귀촌자 휴양지 최상 ㎡ 6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면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Fulfillment Services

쿠팡 광주 물류센터 오픈! 계약직 사원 모집

쿠팡 광주 물류센터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근무 시간	주간 : 09:00 ~ 18:00 야간 : 19:00 ~ 04:00 주 5일 근무 (주 2회 휴무)
급여 조건	주간 : 192만 + @ 야간 : 240만 + @ 연장, 특근 발생 시 추가 지급
통근 버스	광주 전 지역 운행
복리 후생	퇴직금, 연차, 단체상해보험, 명절 선물, 경조 지원, 식사제공
업무	물류(입고, 출고, 재고) 지게차/허브(분류, 상하차)
지원 자격	성별 및 학력 무관 성년인 자 [단, 정년(60세) 미만인 자] 초보 가능, 주부 가능, 동반 입사 가능

문자 or 전화지원 : 010-9664-1299
광주센터/외망 근무조/성함/생년/전화번호/근무가능기간
(예시) 광주센터/주간/홍길동/1970/010-1234-5678/3개월

분할 합병 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한일(이하 "갑"이라 한다)의 일부(전기공사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중앙광주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합병하고자 이에 전기공사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의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의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할 합병하고자 하는 연합의 종류
: 전기공사업(등록번호: 제 전남-01743 호)

2. 분할 합병 예정일: 2021년 11월 12일

3.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1) 기 한: 2021년 10월 13일 ~ 2021년 11월 11일
2) 제출처: 양도, 양수 각 법인
2021년 10월 13일

분할합병인 양도인 "을" 주식회사 한일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997-28(학곡동) 대표자 오병석 분할합병인 양수인 "을" 중앙광주 주식회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매희시장길 11-6 대표자 서인영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 (1차)

당 회사는 2021년 10월 01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고 2021년 10월 05일 해산당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당 회사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공고게제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나 채권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주식회사 컨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6길 12, 4층 비81 (신사동, 다복빌딩) 청산인 김기현

지국 안내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신복암(330821-XXXXXXX)
• 최후주조: 친남 완도군 소안면 사죽길 32

피상속인 망 신복암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1년1091호로 신청하여 2021년 10월 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10월 13일

• 상속인: 1. 신준원(200624-XXXXXXX) 충청남도 논산시 부석면 마구평2길 33
2. 신미영(670323-XXXXXXX) 나주시 빛가람로 800, 309동 701호 (빛가람동, 빛가람사랑오부영3단지아파트)
3. 신필라(690323-XXXXXXX)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100, 105동 1101호 (수송동, 군산수송대영리첼아파트)

• 신고기간: 2021. 10. 13 ~ 2021. 12. 22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2. 신미영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광원근(731103-XXXXXXX)
• 최후주조: 목포시 남매로 87, 1503호 (산정동, 용원비치맨션)

• 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나주시 경원동 299번지

피상속인 망 광원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1년1036호로 신청하여 2021년 10월 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10월 13일

• 상속인: 광희정(960831-XXXXXXX) 광주 광산구 서암로340번길 30, 1011동 404호(월곡동, 영천마을주공아파트)

• 신고기간: 2021. 10. 13. ~ 2021. 12. 22.
• 채권신고처: 상속인 광희정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고희원(390311-XXXXXXX)
• 최후주조: 광주 광산구 우산로 17, 210동 1213호(우산동, 우산빛마을제)

피상속인 망 고희원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1년895호로 신청하여 2021년 9월 2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10월 13일

• 상속인: 최철진(710423-XXXXXXX) 광주 광산구 광산로77번길 29 307호(송정동)

• 신고기간: 2021. 10. 13. ~ 2021. 12. 22.
• 채권신고처: 상속인 최철진의 주소

산행안내

10월24일(일) ▲광주Kj산악회 10월24일(일)

오대산 노인봉&소금강계곡 선재길, 상원사, 월정사 트레킹 산행, 엄주체육관 04:30, 동아병원 04:35, 롯데백화점 04:40, 광주역 04:45, 문예후문 04:55, 비엔누차장 05:00 ※ 다 음과제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光州日報

광고문의 092-227-6900